

## <아시아공동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사학과 201521700 홍새롬

출석번호 41번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기 전, ‘아시아 공동체’라는 단어는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문제 등 여러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시아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으로 시작했던 강의였지만, 매주 다른 주제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윤강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 것이며, 실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가장 남는 강의는 원아시아재단 정준곤 위원의 <지금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입니다.

강의의 제목만큼 왜 아시아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지, 또한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하기에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이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 역시 편협한 시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는 각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인접 국가의 협력과 이해,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경이나 지정학적 개념과는 무관한 문제들이 의식의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강의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생각, 이주문제, 정치·경제·역사분야 등 여러 각도에서 아시아에 대해 공부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간에 있었던 컨퍼런스 역시 각국의 관계를 재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중 우호조약 40주년을 주제로 한 3부로 걸쳐진 행사에서, 평소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던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아시아의 관계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윤강으로 이론적 개념을 쌓으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 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을 더욱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다소 길고, 윤강이기 때문에 시험문제 출제자가 동일하지 않아 공부하는 데 힘드실 수도 있고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수업을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또한 컨퍼런스에서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학우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저의 마인드를 크게 바꾸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인’의 마인드로 생활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장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에서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사원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며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아시아 공동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로 더욱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게 되실 학우분들 역시 수업을 들으며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고 글로벌 마인

드를 갓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